

CNB 저널

+ art in



[사회적경제] 튀는 예술가 주택조합 ‘막굽’

[카 디자인-재규어] “가장 영국적이라야 인기”

[김현주 나홀로 여행] 대륙끝까지 달린 23일

[골프] 테이크 어웨이 때 클럽헤드는?

art in

[커버] 조은필 ‘파랑으로 공간 낮설게’

[블랙 전시회] 검정은 까맣다? 이리 다양한데?

2015년 10월18일 제452호 4,000원

BC 부수인증매체
한ABC매체

ISSN 1975-7492
9 771975 749003

41



신선주,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Cathedral of St. John the Divine)'. 코닥 캔버스에 울트라크롬 피그먼트,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200 x 300cm, 2015.



안자산, '기념촬영'. 캔버스에 오일, 117 x 91cm, 2015.

검정은 그냥 까맣다? 이렇게 다양한데?

‘블랙 베리에이션’전 vs ‘검정색조의 방식: 코니스’전

김금영 기자 geumyoung@cnnnews.com

검정(black)의 사전적 정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 이미지는 무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 죽음, 권위 등을 상징한다. 죽음을 애도하는 색으로도 사용한다.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보호감, 신비감을 준다.’

다양한 색 중 검정이 가진 매력은 특별하다. 사전에 나온 것처럼 무겁고 두려운 이미지를 지녀 공포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러나 또한 패션계에서는 멋지고 시크한 색깔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냥 까맣다고 하기엔 신비한 매력을 지닌 검정색의 향연이 전시장에 펼쳐졌다.

남성의 검정에서 여성의 검정까지 '블랙 베리에이션'전

'블랙 베리에이션(Black Variation)'전은 검정이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과 매체의 포괄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즉 검정을 하나의 색으로 치부하지 않고, 검정이 어떤 매체와 결합하고, 색다른 주제와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 다양성을 실험하는 자리다. 작가들은 검정색을 사용하되, 기존의 작업 성향에 극단적인 변화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자신만의 검정 이야기를 전시장에 풀어놓는다.

문성식 작가는 물과 아크릴을 이용해 2013년부터 관심을 가져온 인물화와 세 드로잉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서로 다정하게 안은 채 눈물을 흘리거나, 기운이 없는 남자에게 여자가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 자체는 희극보다 비극에 가까워 다소 거칠어질 수 있는 이미지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검정색을 사용해 담담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 즉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검은색의 강인하고 남성다운 이미지보다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검정색의 이면을 앞으로 부각시킨 뒤 연약한 생명에 대한 시선과 결합해 작품에 담는다.

설원기 작가는 매체의 특성들, 예를 들어 흡수, 반발, 융합 등의 효과를 이용해 재료들 간의 반응을 실험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들은 내밀한 감정에 집중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매체의 근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성향을 보여준다.

안지산 작가는 스스로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 할 수 없는 오일을 사용해 검정색이 가진 강인하고 거친 질감, 즉 문성식과는 반대되는 검정의 맛을 보여준다. 동물 박제의 모습을 담은 '기념촬영'의 경우 정감 있는 작품명과는 달리 검정색의 어두움이 작품 전체에 감돌며 서늘하고 경직된 느낌을 준다. 안 작가는 "검정이 주는 어두움은 내가 느낀 것들을 보다 명료하게 해주고, 복잡다단한 것들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말했다.

스페이스비엠 측은 "문성식 작품 7점, 설원기 작품 8점, 안지산 작품 6점까지 총 21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단순히 검정색이 가진 풍부한 감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어떤 대상, 이미지와 만났을 때 좀 더 심도 깊은 접근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런 시각적, 감성적 접근은 어떤 주제를 선율과 리듬, 화성 등을 여러 형태로 변형해 연주하는 변주의 특성처럼, 변주를 위한, 변주에 의한, 변주의 검정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스페이스비엠에서 11월 1일까지.



문성식, '남과 여'. 종이에 아크릴릭, 111.5 x 77cm, 2015.



설원기, '드로잉(Drawing) 2 다리'. 폴리에스테르에 잉크, 44 x 36cm, 2009.